

가정의 생산적 기능수행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정 영 금 (기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I. 문제의 제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기업이나 정부는 생산단위이고 가정은 소비단위라는 이분법적인 구도가 형성되면서 남성은 생산자,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정은 소비자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에 비해 소비는 부수적인 기능으로 인식되어 취업을 통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활동보다는 소득을 획득하는 활동이 가치있다고 보게 됨으로써 가정의 생산적 기능이 간과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은 가족원의 노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정생산이 이루어지는 단위이며 가정생산물을 창출하기 위해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구매와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가정이 생산적인 단위임을 재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기능회복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정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즉 가정에 머물러 있던 여성의 노동능력을 재평가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이 정치, 경제 등 각 부문에서 사회활동에 점차 많이 참여함에 따라, 현 정부는 1998년에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에는 여성부를 설치하는 등 여성과 관련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인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고용기회확대를 위한 많은 목표와 전략들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고용촉진을 위해 직장-가정 양립 지원체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은 고용촉진과 안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을 뿐 그 자체가 목표로 설정되거나 가정의 문제로 부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실 상, 여성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2교대 노동을 수행한다고 표현될 만큼 두 노동이 동등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는 여성이 직장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채용할당제와 같은 여성고용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특히 고학력

여성이나 전문직종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온 여성에 국한하여 여성의 노동현실을 제시하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미래의 사회적인 지원체제와 전략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가정의 생산적 역할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II. 여성취업자의 현황

1980년대 이후로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997-8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소 하락하여 1999년 현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7.4%로서 약 87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미혼여성의 참가율은 45.9%로서 약 200만 명이며, 기혼여성의 참가율은 약 47.9%로서 670만 명을 상회한다.

1999년 현재 여성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은데,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고 비임금근로자가 40.3%를 차지한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율은 18.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고용주나 자영업주는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급가족종사자이다.

<표 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전산업, 1999)

(단위: 천명, %)

| | 남 자 | | 여 자 | | 전 제 | |
|-----------|--------|-------|-------|-------|--------|-------|
| | 종사자수 | 비율 | 종사자수 | 비율 | 종사자수 | 비율 |
| 임금근로자 | 7,570 | 63.2 | 4,952 | 59.7 | 12,522 | 61.7 |
| * 상용직 | 4,542 | 37.9 | 1,508 | 18.2 | 6,050 | 29.8 |
| * 임시직 | 1,925 | 16.1 | 2,258 | 27.2 | 4,183 | 20.6 |
| * 일용직 | 1,103 | 9.2 | 1,186 | 14.3 | 2,289 | 11.3 |
| 비임금근로자 | 4,408 | 36.8 | 3,351 | 40.3 | 7,759 | 38.3 |
| * 고용주 | 1,131 | 9.5 | 253 | 3.0 | 1,384 | 6.8 |
| * 자영자 | 3,047 | 25.4 | 1,410 | 17.0 | 4,457 | 22.0 |
| * 무급가족종사자 | 230 | 1.9 | 1,688 | 20.3 | 1,918 | 9.5 |
| 합 계 | 11,978 | 100.0 | 8,303 | 100.0 | 20,281 | 100.0 |

출처: 2000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99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또한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수를 남녀별로 구분해 보면, <표 2>와 같이 임금직에서의 남녀비율은 약 60:40이고 비임금직에서의 남녀비율은 약 57:43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상용직에서의 남녀비율은 75:25로서 여성의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여성고용주나 자영자의 비율도 크게 떨어지는 반면에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거의 9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본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성들은 아직도 직업지위가 낮고 불안정한 부문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취업자들은 남성취업자들과는 달리 가사노동시간이 많음으로써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길다. <표 3>은 남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남성취업자는 대체로 7시간대의 노동시간을 보이는데 반해, 여성취업자는 노동시간이 8-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남녀 모두 취업노동시간은 5-7시간이나 여성의 경우에 3시간대의 가사노동이 추가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표 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여성비율

(단위: 천명, %)

| | 남 | | 여 | | 계 | |
|----------|--------|------|-------|------|--------|-------|
| | 종사자수 | 비율 | 종사자수 | 비율 | 종사자수 | 비율 |
| 임금근로자 | 7,570 | 60.5 | 4,952 | 39.5 | 12,522 | 100.0 |
| *상용직 | 4,542 | 75.1 | 1,508 | 24.9 | 6,050 | 100.0 |
| *임시직 | 1,925 | 46.0 | 2,258 | 54.0 | 4,183 | 100.0 |
| *일용직 | 1,103 | 48.2 | 1,186 | 51.8 | 2,289 | 100.0 |
| 비임금근로자 | 4,408 | 56.8 | 3,351 | 43.2 | 7,759 | 100.0 |
| *고용주 | 1,131 | 81.7 | 253 | 18.3 | 1,384 | 100.0 |
| *자영자 | 3,047 | 68.4 | 1,410 | 31.6 | 4,457 | 100.0 |
| *무급가족종사자 | 230 | 12.0 | 1,688 | 88.0 | 1,918 | 100.0 |
| 전체취업자 | 11,978 | 59.1 | 8,303 | 40.9 | 20,281 | 100.0 |

출처; 2000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표 3>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노동시간

(단위: 시간, 분)

| 구분 | 남 자 | | | 여 자 | | |
|---------|------|------|------|------|------|------|
| | 취업노동 | 가사노동 | 총노동 | 취업노동 | 가사노동 | 총노동 |
| 고용주 | 6.55 | 0.21 | 7.16 | 7.10 | 2.31 | 9.41 |
| 자영자 | 6.46 | 0.32 | 7.18 | 6.11 | 3.04 | 9.15 |
| 무급가족종사자 | 4.18 | 0.35 | 4.53 | 5.22 | 3.41 | 9.03 |
| 임금근로자 | 7.18 | 0.25 | 7.43 | 6.16 | 2.22 | 8.38 |

출처;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통계청

III. 여성취업자의 사회적, 가정적 문제

1. 임금근로자

여성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0년에 56.8%에서 1997년 59.82%로 계속 증가하다가 1998-9년(각각 58.05%, 59.64%)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임금근로자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였을 때, 상용직은 1990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다가 1995년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8-9년에는 감소폭이 더 커져 1999년 현재 상용직 근로자가 전체 여성근로자의 18.2%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임시직 근로자는 90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현재 27.2%를 점한다. 또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1999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14.4%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임금직 근로자들은 상용직보다 임시직에 많이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연도별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비율

| | 임금근로자 | | | | 비임금근로자 | | | 전체 (%) |
|------|--------|------|------|------|---------|------|-------|--------|
| | 임금직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비임금직 전체 | 자영업주 | 무급종사자 | |
| 1990 | 56.8 | 21.4 | 22.5 | 12.9 | 43.2 | 18.7 | 24.5 | 100.0 |
| 1991 | 57.4 | 22.5 | 23.1 | 11.8 | 42.6 | 18.9 | 23.7 | 100.0 |
| 1992 | 57.5 | 23.7 | 22.9 | 10.9 | 42.5 | 19.6 | 22.9 | 100.0 |
| 1993 | 57.4 | 24.8 | 22.3 | 10.3 | 42.6 | 18.8 | 23.8 | 100.0 |
| 1994 | 58.5 | 24.6 | 23.9 | 10.0 | 41.5 | 18.8 | 22.7 | 100.0 |
| 1995 | 59.1 | 25.1 | 24.1 | 9.9 | 40.9 | 19.6 | 21.3 | 100.0 |
| 1996 | 59.5 | 24.2 | 25.7 | 9.6 | 40.5 | 19.9 | 20.6 | 100.0 |
| 1997 | 59.8 | 22.7 | 27.0 | 10.1 | 40.2 | 20.5 | 19.7 | 100.0 |
| 1998 | 58.0 | 19.8 | 27.7 | 10.5 | 42.0 | 19.5 | 22.5 | 100.0 |
| 1999 | 59.7 | 18.2 | 27.2 | 14.3 | 40.3 | 20.0 | 20.3 | 100.0 |

출처;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또한 임금근로자들의 직업별 취업자분포를 보면,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단순노무직 근로자, 사무직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성취업자들의 임금은 19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임금의 62.8%에 불과하며 직급별로도 심한 성차이를 나타내고 있다(2000 여성통계연보).

이 임금근로자들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2시간

22분으로서 취업노동시간을 합하면 하루 8시간 38분으로서 남성의 노동시간보다 길다. 또 사무직 기혼여성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희금, 1998)에서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2시간 40분인데 비해 남편의 노동시간은 35분으로서, 남편의 분담비율이 약 20%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분담시간은 자녀돌보기에 집중되어 있고 가사노동시간이 긴 식생활영역에서는 4.8%(약 4분)에 불과하였다. 또한 가사노동의 분담률은 취업여성의 직업별로도 차이가 있어, 부인이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가정이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정보다 분담률이 저조하였다(장혜경 외, 1998).

한편, 산업발달로 인해 가사노동을 사회화시키기에 용이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고는 하나 아직은 영리적인 사회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의 소비는 소득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취업주부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 등과 같이 소득이 낮은 계층의 기혼여성들이 대체로 취업하고 있으므로, 편의품이나 시장서비스를 이용하여 노동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따라서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여성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을 대체할만한 소득도 없고 사회적인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금노동자들의 노동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여성의 노동부담이 크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취업주부의 노동시간을 국가간에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에 약 3시간 30분 정도로서(이기영 외, 1996), 동일한 자료를 기초로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DeMeis 외, 1996)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남편의 가사노동부담률이 높아 취업으로 인한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감소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자가 없어, 결국 가정생산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상 차별제도 개선, 여성고용촉진의 적극적인 유도, 재고용 활성화와 같은 방안들은 가사노동의 처리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여성의 이중노동과 그로 인한 여성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비임금근로자

개도국이나 선진국을 막론하고 여성의 직업 중 가장 빨리 참여자수가 증가하는 집단이 자영업집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여성의 노동문제를 다룰 때 주로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즉 여성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용할당제와 같이 임금노동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로 강구하였고,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사무직이나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부담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단지 최근의 창업열기에 힘입어 정부에서 여성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학문적으로는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로 인해 자영업자나 재택근로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자영업자만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자원관리학에서도 이 집단의 노동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특히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노동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부분의 여성자영업자들이 소매업이나 숙박업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로 한 류재우(1999)의 연구에서는 비농부문 여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주당 56-59시간으로 임금노동자의 48.7시간보다 훨씬 길었다. 또한 김태홍(2000)의 연구에서도 주당 56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고용주의 경우에는 58.9%,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42.9%로서 상용고의 17.6%보다 훨씬 많으며 남성근로자에 비해서도 많았다.

여성 자영업 종사자들의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집단이 무급가족종사자이다. 여성 자영업 종사자의 반을 차지하는 이들은 취업자로 분류되어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만 기타의 노동자들에 버금가게 높았을 뿐 공식적인 소득이 없다. 무급가족종사자 중 36.5%가 주당 56시간 이상 일한다(김태홍, 2000)는 조사결과로 미루어, 이들의 노동부담을 짐작할 수 있다. 무급노동은 재산분할시에도 문제가 되는데, 자신이 노동을 하여 소득을 벌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혼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전업주부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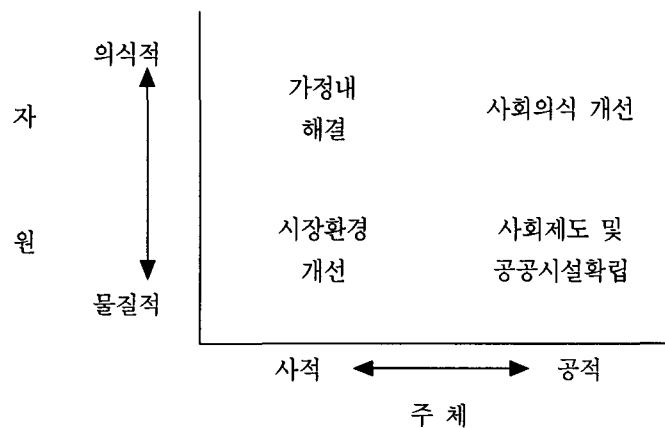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가족기업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정영금, 2001)에 의하면, 여성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들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업의 운영이 우선이므로 가사노동을 최소화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자영업은 생계형 기업이 많아 노동시간은 길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사회화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밤에 한꺼번에 하거나 계속 미루어 두며, 이것은 결국 가정생활의 질적 수준의 저하로 귀결된다.

한편, 여성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영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남성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성자영업자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경험만을 바탕으로 아주 영세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성들은 이전에 근무하던 조직을 보육기로 활용하여 훈련과 인맥형성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여성들은 현장경험의 기회가 적어 경영관리능력을 쌓을 기회가 적다(정희선, 1999에서 재인용). 이것은 여성이 사업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경영능력의 부족을 초래하므로 사업체의 경영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여성자영업 종사자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과 달리 가정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이 공히 논의되어야 한다. 이때 가정적인 측면은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이며, 경영적인 측면은 자신의 노동능력 개발의 차원에서 보다 나은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의미한다.

IV. 미래의 사회적 지원체계

여성의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방법은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결주체의 측면과 무엇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자원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즉 사적인 해결과 공적인 해결, 물질적자원을 이용한 해결과 의식적인 해결 등 두 차원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지원차원을 구성할 수 있다; 가정 내 해결, 사회의식의 개선, 시장환경의 개선, 사회제도 및 공공시설 확립.



〈그림 1〉 사회적 지원체계의 분류기준

출처; 정영금(1999), 가정노동의 지원체계확립을 위한 연구

가정내 해결은 개별가정에서 가정노동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가족원 공동의 노동으로 인식하여, 가족원들이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줄어드는 가사노동량을 사회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족원들이 대체해야 한다.

사회이식의 개선은 여성의 취업을 여성 자신의 일로 평가하기보다는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고 난 후에 가계에 보탬을 주기 위한 보조적인 노동으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교육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시장환경의 개선은 가사노동을 시장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이란 근로자들이 직장가정에서의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내부의 제도로서, 앞으로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사회제도 및 공공시설의 확립은 여성취업을 제고를 위한 제도나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공공복지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지원차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사회적 지원체계와 전략

| 지원차원 | 지 원 전 략 | |
|-------------------------|---|--|
| | 가사노동 | 취업노동 |
| 가정내 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노동 분담(가정생활의 질 확보) -가사노동관리전략 -가정의 생산적 역할 인지 -가사노동의 재정의 -관계망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관리전략의 활용과 교육 -여성취업에 대한 재인식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에 대한 재평가 (정당한 보상, 직업지위 향상) -가정과 일 양립을 위한 정보 |
| 사회 의식의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가사노동 및 여성취업에 대한 재 인식과 평가 -인식개선을 위한 학교 및 사회교육, 교 육프로그램 제공 -방송매체를 통한 인식개선운동(바람직 한 가정상 홍보) -시민단체의 여론조성 -가정노동지원자(분담, 부성휴가자)에 대 한 지지 -육아의 공동적 사회화(취업여성을 위한 공동체운동) -여성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취업목적, 직 종 및 산업의 다양화)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무급 가족종사자, 재택근로자) -여성취업자의 재교육(자영업종사자의 교 육을 통한 지위향상) -여성인력자원의 중요성 인식 및 인력개 발 -‘딸들을 일터로 데려가는 날’ -‘가족친화적인 00대기업’ |
| 시장 환경의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노동의 사회화 -가족관련 정보망 확충(정보공유, 상담프 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탄력근무제, 직장 탁아, 부양가족지원, 가사서비스, 재취업) -가족관련 정보망 확충(일하는 부모 회보 및 세미나) -저소득 취업여성을 위한 저렴한 상품 |
| 사회제도 및 공공시설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성보호제도의 이행 -보육시설 확충 -학령기 아동관리 및 시설 -청소년지도 -노인부양시설 -경제적인 지원(양육비공제 현실화) -정보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여성집단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 -취업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여성인력개발제도의 활용촉구 |

이상과 같이 지원차원과 지원전략들을 토대로 사회적인 지원체계를 설정해보았는데, 이제까지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제정이나 공공시설 확립, 혹은 사회의식의 개선 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 기업, 시장환경까지 변화됨으로써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지원은 여성의 권익차원을 넘어서 가정의 생산적 기능을 회복하는 길이며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홍(2000).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 류재우·최호영(1999). 우리 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109-140.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1996). 한일 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장혜경·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정영금(1999). 가정노동의 지원체계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83-92.
- 정영금(2000). 가족기업가정의 가족자원관리에 대한 사례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가대 생활과학 연구소) 20(1). 5-18.
- 정희선(1999). 일본에서의 여성창업 현황과 지원시책. 경영논집(서울대 경영연구소) 33(3). 462-481.
- 조희금(1998).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47-159.
- 통계청(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통계연보
- De Meis, D. K. and H. W. Perkins(1996). Supermoms of the Nineties. J. of Family Issues 17(6). 776-791.
- Vanderkolk S. B. and A. A. Young(ed)(1991). Work and Family Revolution. Facts On File